

‘연구 업무 전담제’를 통해 살펴보는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기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최은주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1. 서론
2.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 기획
역사(略史)
3.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기획의
의미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전시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학예연구실 연구 전담제 도입
5. 결론

1. 서론

우리 사회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 논의의 중심에는 학예연구실 또는 학예연구직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교차해 온 것 역시 사실이다. 과연 국립현대미술관의 학예연구실은 미술관의 중추적 부서로서 제대로 된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까? 또한 각각의 학예연구직은 자신의 연구 영역에서 우리 미술계를 대표할 만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까? 나아가 국내외적으로 미술관 활동 평가의 가장 중요한 잣대인 전시 기획의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을까? 국내 유일의 국립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활동과 성과가 바로 우리나라 미술 문화의 상징과 척도이기 때문에 위의 질문들은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이 글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기획의 역사와 내용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기획의 의미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문적 기획을 위한 국립현대미술관 조직 체계의 변화와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학예연구실의 연구 전담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전시 기획의 주체인 학예연구직들의 조사·연구가 성공적인 전시 기획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2.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 기획 역사(略史)

오늘날 우리 미술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역사는 1969년에 시작되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국립현대미술관은 우리 근·현대 미술의 역사를 당대 미술가와 그들의 작품을 통해 수용해 왔다. 또한 외국과의 교류 활동을 지속했으며, 교육과 학술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여 우리나라의 미술관 문화를 주도해 왔다.

미술관이 설립된 때는 1960년대 초반에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던 시기였다. 사회 각계에서 일제 칩탈과 한국전쟁으로 늦추어진 근대화의 요구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었고, 창작과 교육에 매진하던 우리 미술인들도 국립 미술관의 설립을 요망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로 당시 문화공보부에서 국립 미술관의 선치를 추진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1969년 경복궁 안에 있던 별관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급세기에 들어와서 미술관의 수집, 보존, 조사, 연구, 교육 등의 업무가 강조되고 있지만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술관에 대한 대부분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미술관은 '전시를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우리나라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은 국전, 유명작가 개인전 그리고 외국 유명 미술 사조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가장 공공적인 장소로 기능해 왔다. 1969년 미술관 설립 이후 2004년 말까지 국립현대미술관이 개최한 전시를¹⁾ 살펴보면 상설전을 제외하고 국내전 188회, 국제전 182회로 무려 370회의 기획전이 열린 것을 알 수 있다.

1969년에서 1973년까지의 경복궁 시절,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 현대미술 연합전》(1970)과 《한국 근대미술 60년전》(1972)을 기획했다. 이 시절 국립현대미술관은 소장품이 거의 없는 전시관의 성격이 강했다. 1949년에 시작된, 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례 미술 행사였던 《대한민국미술전람회》(약칭 국전)의 전시가 주요 역할이었기 때문에 사무장을 비롯하여 8명의 직원이 이끌어 나가는 작은 미술관에 불과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뜻 깊은 2개의 전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국립현대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각인시켰다. 《한국현대미술연합전》은 백양회, 목우회, 한국현대조각연합(낙우회, 원형회, 현대조각회, 조형회) 등 그 당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단체들을 통해 작가들이 대거 참여한 전시였으며, 《한국 근대미술 60년전》

1) 『과천 이전 10주년 기념 자료집: 국립현대미술관 1969~1996』, 103~105쪽 및 미술관 연보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참조.

은 1900년부터 1960년까지 우리나라 근대 미술을 조망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근대미술품들을 집대성한 대규모 전시였다.

이런 활동에 힘입어 1972년에는 사무장제가 폐지되고 전시과·서무과·조사연구과의 3개 과를 설치함으로써 20명의 정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학예연구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사연구과에서 전시를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고, 실질적인 전시 행정 업무는 전시과에서 담당하였다. 이러한 체제는 이후 연구와 실행을 분리시켜 전시를 조직하는 이원화된 기획 시스템을 굳혔으며, 여타 공립·사립 미술관의 조직 체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1973년 국립현대미술관은 경복궁을 떠나 덕수궁 석조전이라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되었다. 덕수궁 석조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석조 건물로 경복궁 별관보다 좀 더 넓은 전시 공간을 보장해 주었고, 동관과 서관으로 나뉘어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를 동시에 열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해마다 개최된 국전과 더불어 《한국 현역 작가 100인전》(1973), 《한국현대미술대전》(서양화 부문 1973, 조각 부문 1974, 공예 부문 1975, 동양화 부문 1976, 서예 건축 사진 부문 1978) 등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동향을 정리하였고, 김환기(1975), 유강렬(1978), 박래현(1978), 이성자(1978), 유영국(1979), 김홍수(1980), 김종영(1980), 김기창(1980), 남관(1981), 박인식(1985), 최영림(1985), 오지호(1985), 이동훈(1986) 등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의 유작전과 회고전을 활발히 개최했다. 1981년에는 신예 작가를 발굴하는 격년제의 《청년작가전》을 신설했다. 이 전시는 현재까지 《젊은 모색전》으로 이어져 미술관의 최장기 기획전시로서 그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외국과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영국 수채화전》(1974), 《독일 현대 도예전》(1976), 《오노레 도미에 판화전》(1980), 《70년대 이태리 현대건축전》(1982), 《현대 종이의 조형—한국과 일본전》(1982) 등이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이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의 성격을 형성하는 고회동, 구본웅, 이종우, 이종섭, 박수근, 김환기 등 우리 근·현대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작가의 작품들이 작가 또는 유족의 협조로 1천 점 가까이 수집되었다는 점이다. 1981년에는 최초로 전문가 출신인 이정성 관장이 임명되었고 이후 김세중, 임영방, 최만린, 오광수, 김윤수 등 한국 미술계를 대표하는 작가 또는 이론가들이 관장으로써 국가 대표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초석을 다지고 발전을 도모하였다. 1986년 국립현대미술관이 과천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덕수궁 시기는 막을 내렸다.

1983년 임명된 김세중 관장은 덕수궁 석조전이 국립미술관의 기능을 수용하기에는 공간적·기능적 한계에 봉착했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국제적 규모의 미술관 건립을 주창했다. 대지 2만 평에 건평 1만 평이라는 대규

모 미술관 건립 사업이 80년대의 국제화 분위기에 힘입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자인 건축가 김태수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이후 세대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의 상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마침내 1986년 전통 성곽과 봉화대의 이미지를 과친 청계산의 빼어난 자연미와 결합시킨 현재의 위풍당당한 건축물로 실현시켰다. 미술관 체제도 과친 시기에 이르러 크게 확장되었다. 관장 아래 학예연구실과 관리과, 전시과, 석외교육과가 설치되어 연구, 조사, 수집, 보존, 전시, 교육 등의 본격적인 미술관 업무가 가능해졌다.

1986년 신청사의 개막 기념 전시로서 《프랑스 20세기 미술전》《프레데릭 R. 와이즈만 컬렉션전》《86 서울아시아 현대미술전》이 열렸고, 2년 후인 1988년에는 서울올림픽 기념전으로 대규모 국제미술전인 《국제 현대회화전》이 열렸다. 학예연구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의 국내외 기획전이 선보인 것도 이 시기 이후이다. 《한국 현대미술에 있어서의 흑과 백전》(1987) 《소장품으로 엮은 인간과 자연전》(1990) 《백남준 비디오 때 · 비디오 · 땅전》(1992) 《한국 현대판화 40년전》(1993) 《민중미술 15년전》(1994) 《사진-새로운 시각전》(1996) 《테크놀로지의 예술적 전환전》(1991), 《휘트니 비엔날레 서울전》(1993) 《일본 현대미술전》(1997) 등이 기획되었으며 일 년에 한 번씩 우리 미술가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작가를 선정하는 《올해의 작가전》(1995년 이후)과 한국 현대미술의 다양한 동향을 시의 적절한 주제를 부여하여 전시하는 《한국미술전》(1995년 이후)의 틀이 마련된 것도 과친 시기이다.

미술관의 국제적인 위상 확립과 함께 세계적인 유명 작가들의 전시가 유치되면서 소장품의 내용도 더욱 다양해졌다. 요셉 보이스, 장 뒤뷔페, 니키 드 생팔, 조지 시걸, 앤디 워홀, 안토니 카로, 도널드 저드, 뽕크, 임멘도르프, 토니 크랙, 안드레스 세라노, 신디 셔먼, 빌 비올라 등의 소장품은 세계적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술관 내에서의 전시에만 주력하던 국립현대미술관은 1990년 이후 《움직이는 미술관》(후에 '찾아가는 미술관'으로 명칭 변경)으로 문화 소외 지역을 직접 찾아가 전시하는 이동 전시를 마련하였고, 1999년부터는 전국의 다중 이용 시설 중 가능한 곳을 2~3곳을 선정하여 일정 기간 활기찬 현대 미술 공간을 조성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시인 《작은 미술관》 사업으로 전시 형식을 다각화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1998년 12월 근대미술 중심의 미술관으로 성격을 규정한 덕수궁미술관의 개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우리 근·현대미술을 바라보는 시대적 관점과 역할을 재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친 미술관은 현대미술 중심의 미술관으로, 덕수궁미술관은 근대미술 중심의 미술관으로 차별된 성격을 부

여하여 우리 근·현대 미술을 균형 있게 발굴하고 진작시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덕수궁미술관은 2002년 국립현대미술관의 분관으로서 그 직제가 정식으로 인정되었고, 근대미술 중심의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개발로 중요 미술관의 하나로 부상하였으며, 향후 국립근대미술관으로서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개관 이후 덕수궁미술관이 자체 개발한 전시는 《한국 근대미술: 조소》(1999) 《한국 근대미술: 공예》(1999) 《작고 작가 드로잉전-선과 여백》(2000) 《자라나는 날개-김정숙 10주기전》(2001) 《바보천재-운보그림전》(2002) 《중국 근현대 5대가전》(2002) 《이가염·장우성전》(2003) 《위대한 회화의 시대-렘브란트와 17세기 회화전》(2003) 《그려온 금강산전》(2004) 《고암 이용로전》(2005) 등이다.

올해 국립현대미술관 기획 전시로는 《신소장품전 2004》 《올해의 작가: 이종구전》 《광복 60주년 기념-한국미술 100년전》 《중국 미술의 오늘전》 《새로운 세기, 새로운 미술관전》 《칠레 현대미술전》 《프로망제전》 등이 파천에서, 《김종영전》 《올해의 작가: 서세옥전》 《한낙연전》 《20세기로의 여행: 피카소에서 백남준까지》 《아시아 큐비즘전》 등이 덕수궁에서 개최되었고 《한국 현대미술 뉴질랜드전: 일상의 연금술》이 뉴질랜드에서 순회 전시를 가졌다.

소장품을 보여주는 상설 전시의 경우도 단지 소장품을 전시장별로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제와 형식을 부여하는 특별전으로 개발되고 있다. 《조방-자연 속을 걷다》 《백남준 & the 2nd Generation》 《한국 현대 드로잉》 《한국 현대 사진: 황규태, 1960년대를 보다》 《김영주전》 등이 금년 상설 전시장을 다채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3.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기획의 의미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004년 11월 20일 국립현대미술관 주최로 기획된 '국립 미술관의 공공성과 전문성 구현을 위한 세미나'에 참여한 관계자 및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공공성과 전문성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²⁾ 이를 위해서는 큐레이터십의 정립(김형숙), 다층적인 전시 평가 및 '전략적 유연성'에 기반한 전시 기획(이준), 공적 자원으로서의 미술관 위상 확립(박일호), 전문성 구현을 위한 시스템 확립(강승완) 등의 논의가

2) 김형숙(서울대 교수), 이준(삼성 리움 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박일호(이화여대 교수), 강승완(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 등이 참여했다.

이루어졌다. 그러나 보다 흥미를 끈 것은 본 세미나 과정에서 도출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기획에 관한 자성과 문제점 지적이었다. 예를 들어 전시 기획에 관한 사회적인 요구와 시스템이 공공성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 전시 기획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대립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큐레이터에게 딜레마로 작용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전시 기능이 과도하게 강조된 나머지 수집, 보존, 연구와 같은 미술관 본연의 기능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관람객과의 소통을 위해 과도한 부대행사로 미술품 전시회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나라 전시회들이 전시회 고유의 소통 수단의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미술관 사업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틀에 맞추기 위해 대중적인 전시에 몰두함으로써 아방가르드의 본질을 지니고 있는 현대미술의 의미 있는 경향들을 전시 기획에서 간과하고 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³⁾

이와 같은 질문들은 국가대표 미술관으로서 수많은 전시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미술문화와 이를 둘러싼 사회 제반 영역과의 관계를 형성해 온 국립현대미술관이 현재진행형으로 깊어지고 나가야 할 무거운 과제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혹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공공성이라는 대의명분을 통해 우리 미술계에서 오랜 세월 '권력'으로 작용해 왔으며 이는 전시의 틀을 통해 작가와 미술계를 조정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다 쉽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에 참여하는 것,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 작가가 되는 것이 우리 미술계에서는 작가의 예술적 성과가 비로소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의미 자체가 권력적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큐레이터는 권력의 실현을 위해 전시를 기획하는 것일까?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질문들은 큐레이터들이 봉착한, 권력에 경도될 수 있는 위험성을 전문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자각을 담고 있다. 즉 국립 기관으로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공공적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재능 있고 창의적인 작가를 발굴하고 실험적인 미술 사조를 반영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미술의 힘을 인식시키고 전시의 가치를 고양시키며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는 예술문화의 진작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공공성'과 '전문성'의 조화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 기획이 낳을 수 있는 '권력적' 요소를 완화하고 우리 미술계를 진정으로 발전시키는 균형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국립 기관으로서 미술관 그리고 국립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시

3) 이순의 질의자로 나선 장영(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의 질의문을 참고할 것.

기획은 원천적으로 '권력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 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터들과 그들의 시각은 본질적으로 우리 미술 문화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작가와 작품에 목표를 두는 '전문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학예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를 항상 가시화할 수 있고 그 중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아이টে을 전시 기획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업무 시스템의 확립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으로서 세미나에 참석했던 강승완은 다음과 같이 국립현대미술관이 지향해야 할 전시 기획의 방향성을 언급하고 있다.

“미술관의 공공성은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의 기여도 즉 내실 있는 미술관 활동과 치원 높은 서비스를 통해 미술관이 국가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데 얼마나 공헌했는가에 의해 확보된다. 연구 기능을 활성화하고 미술관 각 전문 분야의 기초 역량을 강화하여 그 축적물들을 미술관의 제반 활동들에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공공문화 인프라의 질적 향상에 기반을 제공한다. 결국 공공성의 실현은 전문 인력 위주의 미술관 조직에서 구현된다는 신념으로부터 한국의 미술관 문화는 한 걸음 진보하게 되는 것이다.”¹⁾

이를 위해 그는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강조하고 회화, 한국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공예, 사진, 서예, 디자인, 건축 등 미술관 소장품 10개 분야를 반영하는 미술 부문별 역할 분담과 시기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학예연구직 전공 영역을 두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재교육할 것을 주장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 확충 및 조직 재정비를 주장하는 과거의 한 보고서는, 한국 근·현대 주요 작품과 작가의 체계적인 조사 연구와 이를 통한 중장기 전시 기획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독립 부서 운영이 필요하고, 전시 운영 체제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전시 기획 업무를 전시과에서 학예연구실로 이관하여 통합하며, 전시 공간 조성, 전시 디자인, 디스플레이, 작품 포장·운송 등에 대한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전시 운영 기능을 전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가대표 미술관으로서의

1) 강승완, 「국립미술관 시스템의 전문성 구현의 한계와 대안—국립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현대미술관연구』 제15집, 국립현대미술관, 2004, 52쪽.

전문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한 학예연구실의 조직을 확충하기 위해 학예연구실에 3개 팀을 두는 안을 제시했다. 3개 팀이란 국내외 미술 사조와 동향 연구, 작가와 작품의 체계적 분석을 위한 '조사연구팀', 전시 기획 업무를 전시과로부터 이관받아 체계적인 전시 개발, 국내외 기획전시 및 해외 미술 전 확대 개최, 첨단 전시 기법 도입 등을 통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전시를 구현할 '전시 기획팀', 5천 점이 넘는 소장품의 과학적 관리 업무와 전문적 보존 수복을 담당할 '보존과학팀'을 두자는 것이다.⁵⁾

보고서 내용에는 학예연구실의 확충에 따른 전시과, 섭외교육과 등의 변화도 다루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듯 2004년 11월, 전면적인 국립현대미술관의 직제 변경이 이루어졌다.⁶⁾ 미술관 변화의 주요 내용은 그 동안 문화관광부에서 수행하던 미술관 정책을 미술관으로 이관해 미술관정책과를 신설하고 전시과와 학예실로 이분되어 있던 전시 기획 기능을 학예연구실로 통합하여 연구 성과를 전시 기획으로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서 미술관은 미술관정책과, 교육홍보과, 운영지원과, 학예연구실, 덕수궁미술관의 3과 1실 1분관 체제로 전환되었다. 학예연구실에 새롭게 부여된 업무를 살펴보면, 현대미술 분야별 연구 활동, 소장 작품 연구, 국내외 작가, 작품 및 자료의 발굴 및 조사, 미술 관련 도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정기 연구 발표 및 학술 행사, 연구지, 자료집 등 전문지 발간, 소장 작품 수집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수장고 운영, 소장 작품 대여 및 저작권 관리, 소장 작품의 전산화, 보존 수복, 보존 환경 분석, 기획·상설 전시 운영, 기획 전시 및 상설 전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미술관 내부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영역의 활동을 주도하는 핵심 부서로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을 알 수 있다. 학예연구관과 보존과학관, 작품운용관 등 미술관의 전문 인력이 대부분 학예연구실로 집중되었다.

4. 전시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학예연구실 연구 전담제 도입

2004년 신년사에서 김윤수 관장은 미술관의 기능은 작품 및 자료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으로 요약된다고 하면서,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 즉 학예연구직들의 몫이며 이들의 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을 어떻게 단련하고 조화시

5) 국립현대미술관 2004년 소요 정원 요구안 참조.

6) 2004. 11. 18.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 제 92호).

켜 자타가 공인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브레인 집단'으로 정착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미술관이 '소통과 만남의 공간'으로서 일방적으로 작품을 수집하고 평가하는 위치에서 벗어나 당대 예술가들과 미적 창조적 가치를 공유하고 예술 창조 활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른 관람객들과의 의미 있는 소통을 중요시하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요구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학예연구실의 체질 개선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한 것이다. 작년 11월 이후 학예연구실은 현대미술팀, 작품관리 및 의장기획팀, 보존과학팀의 3팀으로 나뉘어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이 중에서 조사 연구 업무와 기획·전시 업무의 기획을 주로 담당해 온 현대미술팀은 학예연구관 3명, 학예연구사 8명 및 기타 전문요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세히 기술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업무 분장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일상적이고 단기적인 프로젝트에 적합한 인력 배치와 팀 구성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대미술팀이라는 애매모호한 명칭을 조사연구팀, 작품수집 및 소장품 연구팀, 기획 전시팀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조사연구팀의 경우 국내외 근·현대 미술 자료의 발굴 및 조사 연구 업무 전담제 운영, 정기 연구 발표 및 학술 행사, 연구지 및 자료집 기획 발간 및 중장기 전시·학술 기획을, 작품 수집 및 소장품 연구팀의 경우 소장 작품 수집을 위한 기본 조사 연구, 중장기 수집 계획 연구, 소장품 관리 시스템 연구, 소장품 DB 구축, 소장품 관련 도록 및 목록집 발간 등의 업무를, 기획 전시팀의 경우 기획전 계획 및 실행, 국제 교류 업무, 전시 관련 책자 및 출판물 제작, 전시 디자인에 관한 사항, 전시자료 DB 구축, 전시 관련 통·번역 업무, 전시 홍보 마케팅업무 등 실제적인 업무를 추진하도록 업무를 재조정했다.⁷⁾

위의 업무 중에서 특히 '연구 업무 전담제'라는 항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연구 업무 전담제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는데, 이 지침은 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자 학예연구실의 고유 임무인 조사·연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작품 수집, 관리, 전시, 교육 등 미술관 제반사업 결과물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즉 미술관의 핵심 콘텐츠 분야인 미술 연구 분야를 종합해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술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술관의 중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리하면 조사연구팀, 소장작품총괄팀, 기획전시총괄팀에 속한 학예연구직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업무와 동시에 자신이 지

7) 2005. 5. 24 학예연구실 업무분장.

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심화시킬 수 있는 연구 과제를 개발하며 조사 연구팀에서는 학예연구직들의 연구 과제가 장애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예연구직들은 회화, 한국화, 드로잉, 판화, 조각, 설치, 뉴미디어, 디자인, 공예, 사진, 건축 등의 부문별, 미주 및 중남미권, 유럽권(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아시아권(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기타 제3세계 등의 지역별 또는 현대미술의 역사와 작가, 작품, 이슈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 연구가 심화되면 이를 전 시로 기획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연구 업무 전담제의 개략적인 운영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실장은 연구원(연구관, 연구사 및 학예실 소속 직원)에게 개인 단위로 연구 프로젝트를 부여한다.(중대 프로젝트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한적 TFI를 운영한다.)

2. 연구 프로젝트는 미술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통한 작품 수집 추천과 전시 기획안 생산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비학예직 연구원은 전문 분야에 따라 별도 연구 과제를 설정한다.)

3. 미술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연구 사업(미술관학 연구,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 등)은 제2조의 기본 연구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프로젝트로 추진한다.

4. 개별 학예연구직은 전문 분야별로 연구 과제를 부여받되, 연구 업무 분장에는 연구 프로젝트의 성격, 학예직의 희망, 적성, 직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연구 사업의 중장기 정책 방향의 수립, 이에 따른 연구 프로젝트의 설정과 분배, 팀 구성(필요시) 등을 위해 매년 초 관장이 주재하는 전체 연구원 회의를 개최한다.

6. 연구 프로젝트는 소요 기간에 따라 2~3개월의 단기 프로젝트, 1년의 중기 프로젝트, 2~3년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 등으로 구분한다.

7. 연구 프로젝트별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간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중간보고회를 의무화한다.(정기 학술 행사, 기획전시 조정회의 등 활용)

8. 조사연구총괄팀은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한 종합적인 사무를 맡아 연구 관련 각종 행정 편의를 지원한다.

9. 연구 프로젝트의 진행은 연구원에 부여된 여타 모든 업무에 우선한다. 실장과 연구관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별 연

구원에 부여되는 여타 업무 등을 최소화·간소화하는 책임을 진다. 또한 개별 연구원 1명당 월 3일을 관내 도시자료실에서만 근무하는 연구일(라이브러리 데이)로 지정해 연구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한다.

10. 프로젝트 진행 관련 자율적 세미나, 토론회 등을 상시 활성화하고 미술 정보 조사를 의무화하며, 외부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도 활성화한다. 이에 따른 예산을 최대한 지원한다.(개별 연구 기획서에 해당 사항 명시)

11. 국내 교류,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은 연구자(팀)책임 하에 진행한다.

12. 연구 내용의 질적 수준에 대한 연구원들의 책임성과 연구에 대한 애착심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 결과는 사전 공개 프리젠테이션, 학술지 게재,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반드시 발표되도록 보장한다.

13. 2005년 연구 프로젝트는 이미 확정된 전시 계획(기획, 상설 등) 등을 감안한다.

14. 개별 연구직의 전문 분야 구분 체계는 소장 작품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삼되, 현대미술의 탈장르적 성격을 감안해 프로젝트별 성격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한다.

15. 연구 프로젝트 수행의 결재 라인은 개인 프로젝트의 경우 담당자 실장 관장이고, TFI 프로젝트의 경우 팀장 실장 관장으로 한다(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정기적으로 조사연구팀에 통보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16. 각 연구 프로젝트의 성과를 측정, 평가하기 위해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매년 말 전문직원이 참여하는 연구 프로젝트 평가회의를 관장 주재로 개최한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ICOM의 윤리 강령 중 다음 조항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운영 주체는 미술관 전문직의 다양성과 다양성에 따른 전문 분야(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미술관 경영과 문화 유산 관리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미술관 전문 인력은 학문적·기술적·전문적 훈련을 이수해야 하고, 운영 주체는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식하며, 적합하고 효율적인 인력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술관 전문 인력에게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8) ICOM 윤리강령 중, 운영주체 항목 참조.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²⁾

‘전시’라는 형식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지향하는 정체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의 동기와 개발, 실현의 각 과정이 미술관의 주체 세력인 학예연구직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끌어져야 한다는 필연적인 전제조건을 지닌다. ‘연구 업무 전담제’는 이를 위한 제도로서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예직에게 부여된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조사 연구와 수집, 특히 전시 기획 업무를 상호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연구 업무 전담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인 과정을 거쳐 전시를 개발함으로써 전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작업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가 보다 높은 질을 보유하고 다양한 전시 형식으로 개발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 업무 전담제’를 통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기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보다 실천적으로 제시되려면 기존에 관행적으로 개최되어 온 전시의 분석과 정비, 전시 관련 업무 시스템 및 인력의 재조정, 중·장기적 전시 개발 전략 수립 등 시급하게 풀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연구 조사에 근거한 전시 개발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식시키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연구 업무 전담제’와 ‘전시 기획’의 긴밀한 상호연관성을 성공적으로 결합시킨다면 우리 미술계에 의미를 던져주는 전시를 생산하고 지역에 존재하는 공공미술관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미술관 인프라를 확충하며 나아가 해외 미술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시개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세계의 어떤 미술관도 그 미술관의 지적 활동과 능력에 대한 평가는 미술관의 학예연구직—보다 보편적인 세계적 용어로서 큐레이터 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지니고 있는 정보와 지식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최종 결과물인 전시 기획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5천 점이 넘는 소장품과 3천 명이 넘는 소장 작가 자료를 구비하여 국가 대표 미술관으로 성장한 국립현대미술관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대는 미술계 안팎에서 계속해서 제기될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현대미술관이라는 특수한 성격에 기초하여 학예연

구직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시대와 사회에 반응하며 이를 전시라는 실체로서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연구 전담제'를 제시하였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고, 국립현대미술관의 학예연구직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제 기능을 하게 된다면, 학예연구실의 역량 강화라는 당연한 과제와 국가대표 미술관으로서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위상 강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국립현대미술관	NMCA(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연구업무전담제	ARPA(Advanced Research Project on Arts)
연구과제	assignment of research
연구일	library day
연구 프로젝트 평가 회의	evaluation council of ARPA

참고문헌

- 『현대미술관연구 제15집』, 국립현대미술관, 2004.
『미술관연보』, 국립현대미술관, 1999~2005.
『과천이전 10주년 기념 사료집: 국립현대미술관 1969~1996』, 국립현대미술관, 1996.
『국립현대미술관 2004년 소요장원 요구안』, 국립현대미술관, 2004.
『국립현대미술관의 공공성과 전문성 구현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국립현대미술관, 2004.

별첨—국립현대미술관 주요전시 및 스튜디오 참여 작가

《올해의 작가전》

(과천) 1995 전수천, 1996 윤정섭, 1997 황인기, 1998 권영우, 1999 김호석, 2000 노상균/이영배, 2001 전광영, 2002 승효상, 2003 광덕준, 2004 김익영/ 윤광조, 2005 이종구
(덕수궁) 2001 권옥연, 2002 전혁립, 2003 한복, 2004 정점식

《젊은 모색전》

1981년 《제1회 청년작가전》

강남미, 김아영, 김용익, 김용진, 김용철, 김장섭, 김창영, 김천영, 심태호, 김호석, 백철수, 이동황, 이두식, 이윤희, 이정운, 장영숙, 정현주, 주태석, 지석철, 진옥선, 진옥수, 한운성(22명)

1983년 《제2회 청년작가전》

고영훈, 공옥심, 박정명, 금누리, 김강용, 김관수, 김영순, 김웅기, 김진관, 문범, 박관수, 박광진, 박윤서, 송윤희, 신산옥, 예무근, 이명미, 이석주, 이인화, 이철량, 임영길, 정정연, 조상현, 형진식, 홍순주, 홍순철(27명)

1985년 《제3회 청년작가전》

강경규, 김덕년, 김문기, 김방희, 김병중, 김보희, 김인경, 김일영, 김진성, 김한국, 김호득, 김호봉, 임효, 박선희, 백운봉, 시용선, 서정찬, 서정태, 신제남, 심부섭, 안성금, 오우석, 오형태, 원인중, 윤여환, 윤의영, 이기봉, 이상조, 이선원, 이영식, 인철순, 인혜란, 장명규, 정규석, 정수모, 정완규, 정일, 정현, 정현도, 최병기, 탁명옥, 하정애, 황주리(43명)

1987년 《제4회 청년작가전》

강상중, 강영순, 김성배, 김홍년, 김희숙, 김찬동, 노상균, 문봉선, 박은수, 배상하, 신달호, 신동효, 신영성, 안원찬, 오상길, 오원배, 윤명재, 이강희, 이영배, 이윤호, 이형우, 장민섭,정은미, 조성모, 조성부(25명)

1989년 《제5회 청년작가전》

권석봉, 권여현, 김규정, 김석환, 김선형, 김수경, 김정희, 노경애, 박순옥, 박현선, 박훈성, 성선옥, 손서란, 안치인, 양해웅, 육근병, 윤영석, 윤진섭, 이교준, 이두한, 이불, 이상석, 이원곤, 이익렬, 이재삼, 이정길, 조덕현, 조닌, 천광엽, 최정화, 한지선, 홍승일(32명)

1990년 《제6회 젊은 모색 '90》

장경구,곽정명, 김미술, 김선두, 김선형, 김성은, 김성호, 김성희, 김은숙, 김호석, 김훈, 문봉선, 박성태, 박인현, 배성환, 사석원, 서도호, 상선옥, 신산옥, 심현희, 이만수, 이선우, 이승하, 이종목, 임정기, 심종미, 조순호, 조환, 차대영, 하정민, 허진(31명)

1992년 《제7회 젊은 모색 '92》

공성훈, 구분칭, 김영진, 김성환, 김형태, 민경숙, 박광렬, 백광현, 석영기, 신이철, 신지철, 신지식, 안수진, 오경화, 육대진, 유동천, 이동기, 이상용, 이수경, 장문길, 장형진, 정하운, 정희진, 한수정, 홍성동(25명)

1994년 《제8회 젊은 모색 '94》

고명근, 김대수, 김병숙, 김병혜, 김지현, 김황복, 박정환, 박장식, 박희련, 백의례, 신경희, 오상근, 윤영진, 윤종구, 이상우, 이강화, 이수홍, 이주용, 임연숙, 장남용, 전항섭, 채미현, 허구영, 홍성민(24명)

1996년 《제9회 젊은 모색 '96》

김동유, 김미애, 김은, 김일권, 김준, 김태성, 김형현, 안필연, 유영호, 이민정, 이재복, 이준복, 임희중, 박신영, 손준호, 조계형, 최기석, 최지안, 홍미선, 홍현숙(20명)

1998년 《제10회 젊은 모색 '98》

고낙범, 김기철, 김미경, 김상우, 김성남, 김용수, 김장욱, 김현수, 김형관, 신형섭, 이유, 이종재, 전용석, 허은경, 홍수자(15명)

2000년 《제11회 젊은 모색 2000》

권혁, 김나영, 김상길, 김주현, 김홍석, 문경원, 박경주, 양주방(양석운, 주인숙), 유승호, 유근택, 이기영, 이재효, 장혜연, 정서영, 정수진(16명)

2002년 《제12회 젊은 모색 2002》

고예실, 고희승, 김승현, 박성숙, 박성원, 백경찬, 심지수, 여경란, 이광선, 이동훈, 이재경, 조남주, 최상용, 최성재, 최우원, 최정희, 홍성열(17명)

2004년 《제13회 젊은 모색 2004》

한국 : 권오성, 박혜성, 양아지, 이형구, 조습, 천성명, 황혜선
중국 : 평정지에(佟正杰), 홍 하오(洪浩), 홍 레이(洪磊), 상단윈(郝丹文),
왕침송(王慶松), 웨이 둥(魏 东), 자오 반디(趙半狄)

일본 : 쿠와쿠보 료타(桑久保 亮太), 카와시마 히데아키(川島 秀明), 켄지 야노베(矢延 憲司), 부라기시 마나부(村岸 學), 나카무라 테즈야(中村 哲也)(3개국 총 19명)

《해외 전시》

Working with Nature Traditional Thought in contemporary art from Korea(Tate Gallery Liverpool) 1992
정창섭 윤형근 김창열 박서보 이우환 이강소

The Tiger's Tail-15 Korean Contemporary Artists for Venice 1995

안성급 조덕현 조성묵 하종현 김수자 권덕훈 이형우 이종상 이규선 임옥상 심문섭 윤병로 백남준 백윤희, 윤석남

Inside Out-Four Artist from Korea (ICA Univ. of Pennsylvania) 1997, 1998

김영진, 박화영, 배병우, 임영선

Ancient Tradition/ New Forms(Joscloff Gallery Univ. of Hartford) 1997, 1998

권여현 김종학 김호득 김홍수 박기원 박현기 배병우 윤석남 정광호 최정화

In the Year of the Tiger-Contemporary Art from Korea 1999(한국 현대미술 독일 순회전)

안성급 배병우 배준성 조덕현 최정화 전수천 강익중 강용면 김영진 이형우 임영선 박신영

《창작 스튜디오 작가》

창동 1기

김종학 오인환 박은선 문경원 정서영 한기창 양만기 홍수연 박소현 송은영 정관숙 김란희 백승관 임현락

창동 2기

김창겸 이민주 유현미 이운진 김중걸 박원주 금중기 백기영 채미연 차기울 이한수 박윤영 노순석 박지은

창동 3기

권오상 김주연 김혜련 박소영 방병상 신동필 이강욱 유영호 채우승 허윤희 Brigit O' Brien

고양 1기

문혜정 전지연 김소연 이상구 박춘호 정주영 황우철 이호철 한정광 설경철 강미선 유비호 이진영 박진호 권순왕 권희정 이은숙 정재철 김명진 유명균 김선태 김종구

Abstract

New Paradigm in exhibition organizat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Eun-ju Choi

Since the evaluation of its intellectual activities and abilities is done by curator's capabilities, planning exhibition is very important as the final result achieved by their own knowledge, information, and research.

ARPA(Advanced Research Project on Arts) is suggested as the system which enables curators responding simultaneously to the society in the times, based on its special characteristics. If this system settles well, which means that the curators at NMCA(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play their roles as the professionals in each of their fields, the goal of consolidating the status of museum as the representative national museum, and building up competent department of curators, will be achieved at the same time.

To clarify above, the curators set up the various assignments of research about the types of arts such as painting, Korean painting, sculpture, installation, new-media, design, craft, photography, architecture, etc. And they establish the art objects classified by the regions, such as the Northern American, Southern American, European, Asian, and other Third World countries. They elaborate art objects more on the history, the work, the artist, and the issue of contemporary art. Furthermore, when the curators devote deeper study to those research subjects, they can have the opportunities to design an exhibition upon the research. Today, the museum of art is 'The Place for Communication and Encounter', it is regarded important to share the aesthetical, creative values with current artists, and to understand mutually with the spectators. It is needed to improve the curator's work, in order to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and even to advance. Because the form of 'exhibition' is the tool that reveals the identity NMCA aiming at, the motivation, the development, and the realization should be leaded by the curators, who are the mainstream of the museum. ARPA is a system for identifying the exhibition like mentioned above. The main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produce synergy effect, having the researching, collecting work in liaison with planning exhibition. ARPA will be able to improve the quality of exhibition through the way of developing the exhibition, passing

through the stable process in the long run.

So far, I have referred to a new paradigm of the exhibition design at NMCA via ARPA. Yet, there still remain missions in reality, such as analyzing the previous exhibition and reshuffling personnel and system, which should be done. When these matters settled, these plans would be suggested practically. At this point, it is the most significant that NMCA is attempting to let others aware of the importance of exhibition planning based on research. when the ARPA and exhibition planning is conjoined together successfully, the competent exhibition will be achieved, which can offer a meaningful exhibition to the art world, strengthen infra structure thru exchanging with public museum in the region, and eventually, establish a network with museum in foreign countries.